

2020년 12월 1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반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제공일: 12월 14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충남 천안, 경북 구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

-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김현수 장관, 이하 '중수본')는 12월 14일 ①충남 천안 체험농원에서 사육중인 거위(관상용), ②경북 구미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의심 사례가 총 2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
* ①거위 42수·오리 5수(관상용) ②육계 약 23천수

- ①: 해당 체험농원 소유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
- ②: 도축장(경북 상주)에 계류 중이던 해당 농장의 육계에서 폐사가 발생하여 경북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

* 2건 모두 정밀검사 진행 중, 고병원성 여부는 1~3일 후 나올 예정

-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의심사례가 확인된 각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, 역학조사 등과 함께,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및 예찰·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.
- ②번 사례의 도축장에 대해서도 도축장 종사자, 관련 차량 등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하였고,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도축장의 가금을 전량 폐기 중